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입춘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매서운 바람 속에도 대지는 이미 봄의 맥박을 품고 있습니다. 삭막한 나뭇가지마다 차오르는 생명의 물오름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섭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소생의 계절에 초고압 송전선로(HVDC) 사업을 둘러싸고 들려오는 갈등의 소식은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다투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전력 생산

지와 소비자의 극심한 불균형에 있습니다. 신안 등 전남 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과 경기도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실어 나르기 위해, 많은 지역들이 거대한 '전력 통로'가 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정작 전기를 쓰는 곳은 따로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공포와 재산권 침해, 청정 농촌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가혹한 집은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 된 것입니다.

특히 농·축산업이 생계인 주민들에게 송전선로 건설은 생존권의

업의 한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행정적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여겼던 태도의 결과입니다.

대륙 가슴 아픈 것은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일부 지주와 대다수 주민 사이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은, 수십 년간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웃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만 몇 장으로 주민의 마음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노선 우회 등 기술적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력 소비자가 그 책임을 함께 분담하는 '에너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닦아주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 사회가 약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를 보여주는 윤리적 척도입니다. 특정 지역의 눈물 위에 세워진 전력망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에너지 고속도로, 효율 보다 공감이 우선

집 앞마당에 세워질 첩탈의 보상금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이 안전하다는 확신과 우리 지역의 회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예유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길은 사람의 마음을 타고 흘러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 해도, 그 길목에 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 빛은 온전한 축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사업 시행사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신음을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지중화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웃의 평안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모진 바람을 함께 견뎌낸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고, 우리 들녘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며 함께 웃을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받는 이웃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참된 화평과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돈이나 양식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많은 본문에서 강조한다.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에도 그 말씀이 있다.

레 25:35-37, "35.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가류민이나 동거민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로우신 하나님이 그 악인으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셔서, 그 선인(善人)을 통해 결국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반드시 살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었다.

렐 18:8-13, "8.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 9.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이자 금지

그런데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않고 꾸어 주는 것은 영영히 요동치 않을 의인의 삶으로 노래되었다.

시 15:1-5, "1.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5.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고리대업자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교훈되었다.

잠 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곧 악인(惡人)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그 이자로 축적한 재산은 공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13.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고 심판과 구원을 가르쳐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다.

요컨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영히 요동치 않을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반드시 살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늘린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하는 날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니다. 세 명의 아들이 있고 두 명은 벌써 군 복무를 마치고 성인이었다. 언제 집을 떠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 5월 둘째가 전역한 날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10개월째 열심히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해보니 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70세 이신 선배님께 했더니 너무나 잘했다고 본인 가족도 늦었지만 해야겠다고 하신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의 날'을 만들어 함께 해도 좋겠다. 여러 가지 기념의 날들이 있다.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인데

언론과 상술에 빼빼로를 사기도 하고 초콜릿이나 사탕을 사서 선물하기도 하고 삼겹살 대이라는 것이 있어 삼겹살을 먹으며 기념을 하며 보내기도 한다. 5월에는 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의 가족들은 가족 중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날 많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된다.

보통은 사람들이 꼭 무엇을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된다. 건강을 잃고 나면 평소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간다. 가족의 일상적인 행복도 잃고 나면 보이기 시작한다. 작고 소박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친구를 잃고 나면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친구도,

가족도 일도 평소엔 지켜야 한다. 첫째 아들은 중고생 시절 달리기 육상선수였다. 그 많은 대회 중 한 번도 시합에 응원하러 가지 못했다. 미안함이 마음에 남는다. 둘째 아들은 사이클 선수다. 여전히 초창기 몇 번 말고는 응원하러 가지 못했다. 여전히 미안함이 마음에 남는다. 생중계로 유튜브를 보며 혼자 차안에서 오열한 적이 있다. 왜 그렇게 바빴던 것일까? 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어리지만 하던 두 아이들

이 군 입대를 했을 때 집이 텅 빈 듯했다. 2년여를 애타게 기다렸더니 전역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 집을 떠나는 아들을 보며 함께 할 날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십 수년째 거의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늦은 시간 초등학교 5학년 인 막내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간다.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머지않아 이 소중한

행복의 시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추억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른다.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거머쥐는 시간을 낸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으나 더 늦기 전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매달 한 번씩 '가족의 날'을 보냈으며 한다. 다른 어떤 것들 통해 성취를 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한 행복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조금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도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신명만 미래,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불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